

BRM 단위과제 관리 절차 개선(안) 관련 의견

유재상 연구관 (교육부)

□ 단위과제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나 기록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제도와 시스템

- 단위과제는 조직의 기능을 분류한 최하위 단위로 직제 담당부서에서 전담관리 하며 보존기간 부분만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체계
- 또한 기록관은 신설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검토하고 확정되도록 보조하는 중간 검토자 역할로 주도적인 업무 영역 부재
- 기록관리법상 기록관리기준표는 BRM에 기록물 관리를 위해 추가 요소(보존기간 및 책정 사유, 보존장소 등)를 포함해 만든 표로 BRM의 하위 요소를 관리하는 형태로 보여지고, 기록관에 BRM시스템의 권한도 일부 기능만 부여된 상황

□ 단위과제 관리 절차 개선의 추진은 실무적 협의와 기록관 담당자에 대한 업무 고려가 중요

- 본 개선안은 ① 단위과제에 대한 기록관 권한 확대, ② BRM 중 단위과제만 기록관에서 전담관리를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두 개선안 모두 직제와 연관된 권한 사항으로 실무적인 문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또한, 두 개선안의 공통적인 단점으로 기재되어 있듯이 기록관 담당자의 업무 가지 수를 늘리는 형태로 업무 부담만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됨

□ 1안) 단위과제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의견

- 단위과제 사전협의제는 단위과제의 기록관 통제 권한 신설로 보이는데, 기록관리 담당자가 기관의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이 제도가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교육부의 경우 BRM 담당자가 단위과제 관리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직제 업무 관리만 신경쓰는 상황으로 오히려 실익없이 BRM 관리 책임과 업무 과중만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
- 세부적으로 사전협의 절차에서 기록관의 역할은 기능유형, 업무설명 등의 전반적인 검토인데 그건 단위과제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그보다는 기록관리 분야만 집중 검토하도록 명확한 업무 조율이 필요해 보임

□ 2안) 단위과제 분리운영 제도에 대한 의견

- 분리운영 제도는 단위과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 이양으로 생각됨. 다만 기능분류체계가 직제 담당 부서에서 전담하는 업무인데 기록관리를 위해 단위과제만 분리 운영한다는 것은 직제에 맞춰 단위과제를 관리하다 직제와 상관없이 운영해도 되는 체계를 도입하는 모양새로 보임
- 기록관의 업무 과중이 예측되고 직제 업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이라 인력 충원이 가능할지도 의문임. 또한 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해 BRM 주관기관에서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을 직접 반영해야 하는데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임
- 2안의 경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거꾸로 접근하는 느낌임. 단위과제 관리가 미흡해서 기록관리가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위과제 관리 업무를 가져오려는 것으로 보임. 분리운영을 해도 기록물 오분류나 단위과제 중복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BRM시스템 운영 기능만 가져오는 형태가 되어 직제 관리 부서의 업무를 수발하는 상황이 될까 우려됨